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12월호



한 해의 결산

한 해를 마치면서 감사와 아쉬움이 교차된다. 좋았던 것은 나 잘난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돌릴 것 뿐이며 반면 좋지 않았던 것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충 때문이었으니 깊은 반성이 있을 뿐이다.

총현교회도 역시 금년 한 해 감사할 일이 많다. 천국 일군 양성, 북한 선교,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성전 건축이란 오대 목표에 많은 발전을 허락해 주셨다. 금년도 성전 건축의 진척 목표가 계획대로 이루어져 아담한 교육관과 선교관이 완공단계에 있고 본당 아랫층에서 예배드릴 장소도 준비되었다(성도들의 형편은 여의치 않았으나 계획 목표대로 진척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뿐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이사와 임당 계획은 시행되지 못하고 총무로 교회당에서 거울을 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는 겸비한 반성 뿐이요 어떠한 낙심도 원망도 불평도 있을 수 없다.

가나안 복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허락하신 땅인 것처럼 새성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것이다. 거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키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에 빛이 되라고 허락하신 기업이다.

다만 우리가 이 거룩한 분깃을 받아 누릴 자격과 준비를 갖추었는지가 문제라고 본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인격과 신앙을 키워주신 하나님이 총현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같은 믿음의 분량, 정성의 분량, 사랑의 분량을 요구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다짐하시고 초대 교회의 양무리를 맡기셨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비록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스러울지라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하는 참된 사랑의 고백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 행실로 드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없는 생애를 살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가?

믿는 자들의 공동된 바람을 이상과 같이 가지면서 주님 나신 성탄일을 기다린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가 앓긴 어둠움의 수백년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대로 임할 임마누엘의 은총을 기다린 것처럼 말이다.

총현교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에 그리고 국내외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을 맞이하여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 12월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1권 제11호 통권116호

1983년 12월호 차례

○권두언 / 한 해의 결산.....	주 간 · 2
○이달의 말씀 /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당회장 · 4
□ 성탄특집	
· 성탄이 주는 세 가지 교훈.....	김진택 · 6
·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	허종욱 · 9
· 성탄을 맞는 성도의 자세.....	장정일 · 12
□ 지상특강 / 아브람 교회.....	조영길 · 14
◎ 찬송가 감상 /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김장근 · 16
○회곡으로 보는 신앙간증 / 여자에게서 생명과 구원이	송환장 · 17
○신앙간증 / 너는 행복자로다	안윤진 · 18
○신앙일기 / 감사의 편지	최영욱 · 19
○구연동화 / 베틀의 선물	이대길 · 20
○나의 감사 / 작은 감사.....	황옥수 · 22
○교사일기 / 학생 심방을 마치고.....	오경록 · 22

* * * * *

○신간서평 / 참된 그리스도	○선교사 선교지 소식.....	23
인의 삶을 위하여.....	○기관소개 / 구역권찰회.....	25
○1984년 각기관 임원명단.....	○이달의 교우동정.....	33
○교회소식.....	○편집후기	34
○이달의 행사		



□ 표지해설

베들레헴 들녘에서
목양하고 있던
목자들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광경을
구스타프 · 도레가
그린 성화이다.

미가 6 : 6 - 8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
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나』 (미 6 : 8)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공평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분배에 있어서 공평치 못하기 쉽습니다. 또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공평치 못하기 쉽습니다. 꼭 같은 죄를 범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삼년, 어떤 사람에게는 십년을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 같은 법과 양심과 하나님의 절대표준인 말씀을 가지고서 내리는 판단이 달라지는 기가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저울은 거짓말을 안합니다. 법은 거짓말을 안합니다. 법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안전한 발전과 질서있는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공평에 뿌리를 박고 자라난 나무의 열매가 발전과 평안입니다. 공평이 없으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

고, 교회에 평안도 없고, 나라에 발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놓고 공평한 분배와 사건처리를 할때에 화평과 질서가 있고 책임을 감당하려는 충성이 생기고 정상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정 내교회 내나라가 공평할 수 있는 때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요구하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인자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는 인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잔인하고 고약하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이 잘못했을 때에 바꾸어 생각해 보고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할 가능성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남의 어려운 사정을 보면 업수이 여기지 말고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 먹은 형들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형들과 온 식구들을 데려다가 공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자한 사람은 과거에 억울했던 것은 잊고 용서해주고 현재에 어려운 처지는 동정해 주고 두려워 하는 일에 위로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충현의 성도들은 자신이 잘못했으면 울고 때릴줄 알기 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사람은 엄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하여 관대하여 변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사람의 천대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잘못했으면 '그까짓것' 하지 말고 밤을 못먹고 울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잔인하리만치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바다처럼 너그러우면서 숨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인격자가 됩니다.

3.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인생은 길가는 나그네인데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원수가 많습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위태롭습니다. 그러기에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못된 사람과 같이 간다면 차라리 혼자 가는 것만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힘과 의지가 되겠

읍니까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실력있고 훌륭하다고 해도 해결 못 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산 같은 어려움이 있고 바다 같은 환난이 온다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와 동행하십니까? 겸손한 자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하고는 절대로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갚아 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자기 책임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느 일이든지 소홀히 하지 않고 자기의 있는 힘 전부를 다합니다. 요셉은 겸손하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도 충성했고, 감옥 생활에도 충성했고 궁중생활에 충성했습니다. 짐승의 왕인 사자라도 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자기의 있는 힘 전부를 쏟아부어서 잡습니다. 슬금슬금 잡는 법이 없습니다. 이같이 사람도 실력자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정성을 쏟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쏟을 줄 모르는 사람은



김 창인 목사 (중현교회 당회장)

큰 일을 못합니다.

셋째로, 모든 일에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속담처럼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실수할까봐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네째로, 자기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꾸며도 핑계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을 우물쭈물 연기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 그 자리에서 울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괴로워도 내일의 행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손해가 나도 인내하며 낙심치 않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30여년 동안 너무 많은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데모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순

종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뭇사람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대립하거나 반역하지 말고 옳면 서 간청하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책망하고 채찍을 들어 때리지만 부모가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간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적은 지식, 경험, 실력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괴롭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다같이 순종의 원리를 배우시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중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남은 여생 공평한 사람, 인자한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공자로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 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6.25와 같은 재앙이 없이 예수의 복음으로 복쪽의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이 땅과 이 민족에 다시는 피흘림이 없는 나라가 되어 금수강산에 행복의 꽃이 피고 육천만 백성이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中

성탄이 주는 세 가지 교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
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
들이라 일컬으리라』(눅1 : 34-38)



김 진 택 목사
(한성교회 담회장)

신약의 단어연구라는 책의 누가복음 서론에서
빈센트(Vincent)는 누가복음이 지니는 몇 가
지 특징을 말하고 있다.

• 누가복음은 대조의 복음이다.

의심하는 사가라와 신뢰하는 마리아, 분주한 마르
다와 조용한 마리아, 감사하는 문둥이와 감사없는
문둥이.

• 누가복음은 우주적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인류의 공동조상인 아담
으로부터 시작한다.

•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복음이다.
나사렛의 겸손한 마리아에게 하늘의 영예가 주
어지며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 잔치를 배설할
때 가난한 자를 초청하라는 주님의 말씀 등

• 누가복음은 여성의 복음이다.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할머니, 막달라 마리아, 마
르다와 마리아, 나인성 과부 등이 있다.

•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다.

세례 받으실 때의 예수님의 기도, 문둥이를 깨끗
케 하신 뒤의 기도, 열두 제자를 선택하기 전의 기
도, 변화산의 기도,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한 기도,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18장의 비유의 말씀, 밤

중의 친구의 간청 등이 기록되어 있다.

• 누가복음은 노래의 복음이다.

스가라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시몬의 노래, 천사
의 노래 등이 있다.

• 누가복음은 어린이의 복음이다.

새레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
한 자세한 이야기, 할례 받는 일과 성전에 올라가는
일,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는 일의 기록은 누가
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재료이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책
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몇 가지 교
훈을 찾아볼 수 있다.

1. 예수님은 순결한 여성의 태를 통해 오 셨다(눅1 : 34)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예언
할 때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했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
는 말은 부부행위의 경험이 없는 순결을 뜻하는 말
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 보내셨다.

순결의 중요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요즈음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태는 너무나 난잡한 인상을
풍겨준다.

순결을 비웃는 풍조가 있는가 하면 결혼 전의 순
결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
들이 늘어가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부 리브가도 창세기 24장 16절에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했
다.

신앙의 계승이 이렇게 순결한 사람들을 통해 형
성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 왕 바로로부터 추
대를 받고 성적위기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바로
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기록이 있다(창12 : 14-
17) 메시야가 오실 태의 순결을 하나님께서 보호하
시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된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6-27절에서 우상 섬기는 이방사회의 도덕적 불결에 대하여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고 말했다.

상당한 보응이 무엇일까? 요즘 보도기관을 통해서 신생아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충격적인 리포트를 듣고 보게 된다.

신생아의 질병의 대부분이 부모의 성병에서 오며 또는 미혼모에서 온다는 것이다. 심리적 불안상태, 죄책의식 속에서 잉태한 생명이니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술라타는 말하기를 “거짓으로 사는 종교, 더러워진 육체, 미움과 싸움이 환영되는 사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라고 했다.

남녀의 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요셉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마1:25)고 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순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하겠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으니(눅1:15) 모태가 얼마나 귀중한가?

II. 예수님의 육체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눅1:35)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위대한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

천지창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했다. 천지창조에 있어서 성령은 예술의 세 가지 원칙이 되는 빛과 형태와 아름다움을 부여하셨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육신은 원죄와 상관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혈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것이다(벧전1:18-20)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중생도 있게 되는 것이다. (요3:1-15) 우리의 육신은 성령이 없이도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천국시민이 되는데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천국 시민이 되는 필수조건인 것이다.

니고데모가 비록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되는 죄인인 것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새삼스러운 질문같지만 한 번은 꼭 묻고 분명한 대답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구약에서도 교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거하는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약 120명의 기도하는 무리가 있고(행1:14)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말하는 무리가 있다(2:1-4)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이같이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경이 있다. 성경은 성령의 산물로서 그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러므로 존 스타트 목사는 “성경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유지하며 기도하며 개척하며 통일시키며 부흥시킨다”고 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성령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이 악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것이다(엡5:18) 주초 문제가 개방적이어서는 안된다.

존 스타트 목사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짐승처럼 되고 또한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되기도 하나 성령충만하면 사람답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고 말하였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누구도 술이나 마시면서 취하는 기분으로 보내서는 안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므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참 리에비니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다.
천사를 통한 하느님의 말씀에 동의한 마리아의 동의를 신적인 각오에서 나눈 것이다.

Ⅲ.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동의하는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은 오셨다 (눅1 : 35~38)

처녀가 잉태하면 약혼자인 요셉에게 오해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는 간음한 죄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는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에 동의하였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은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하는 가나안 여자의 기도에 대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했다. 여기에 여자의 위대한 믿음을 볼 수 있다. 자기를 경멸하여기는 말이고 또는 낙심케 하는 말같았지만 그는 “옳소이다”라고 대답했다.

참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스피존은 말했다. 믿음은 하나님이나 하신 말씀에 다만 “옳소이다”하는 것 뿐이다.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천사도 영도 부인하면서 부활 후의 세계에 대해 질문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마22 : 29)라고 하셨다.

참 믿음은 말씀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다. 마리아의 동의도 순교적인 각오를 가진 동의인 것이다.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의 신앙과 생활이 대단히 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정신으로 살아가신 것이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마26 : 54)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군인들을 죽이기 위해 천군천사를 동원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나(53절) 자기가 살기 위한 기적보다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오늘날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기도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나 나는 살고 남은 죽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서 버티어 보겠다는 생각들이 많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것이다. 아버지도 순종(마1 : 24), 어머니도 말씀에 순종(눅1 : 38), 그이들 예수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8절을 본문으로 워필드(warfield)는 “성육신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중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레니우스의 말대로 예수님은 모든 연령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로 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오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을 수 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는 소년 예수님, 부모의 일을 도우시어 일하시는 청년 예수님, 그러면서도 내 아버지의 일을 늘 염두에 두시는 예수님, 규례를 좇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시는 성인 예수님...

그는 왕이시나 출생의 교만이 없고 그 안에는 진지하심이 거하시나 지성의 교만이 없으며 그의 손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나 능력의 교만이 없으셨다. 그에게는 뛰어난 거룩함과 신하심이 있으며 신성의 충만이 있되 그의 신분의 교만이 없으셨다. 도리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겸비한 마음을 품으시고 병든 자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굶주린 자 먹이시며 어디서나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떼어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침내 악인의 무리에게 에워싸여 가시되 두려움이나 당황한 빛없이 그에게 정해진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시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그의 생명을 주셨다고 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하지만 그아들이 삭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도 위대하다(창22 : 1-2).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의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하겠다.

신앙이 없는 생활은 맹목이고 생활이 없는 신앙은 공허한 것 뿐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에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



허 중 욱 목사

(대학부 지도)

1.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1983 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날이 밝기 직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어둡듯이 주님의 재림이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진 이때는 과거보다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욱 어둡다. 어두운 때일수록 빛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캄캄한 밤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는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은 바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요17:13-17), 또한 프란시스 셰이퍼가 말한 바대로 20세기 말 이요 기독교 후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가 어둡기 때문이기도 하나 적극적으로는 네(교회)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사6:1).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인가? 아사야 60장 2절에서 이 빛은 교회 위에 임한 여호와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이 교회 위에 나타났다고 한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라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이다. 그러나 임마누엘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교회에게 이 명령은 주님께서 친히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되었다.

2. 빛의 열매는 생명의 결실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사60:4)고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 교회로 나아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사60:22)고 하였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가? 그러므로 이미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고 말씀하신 것이다. 바울 사도도 빛이신 예수님(요1:4)을 영접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5:8)고 하였다.

그러면 빛은 무엇인가? 빛은 예수님 자신이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성도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3.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경에 많은 진리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진리 중의 하나가 성육신이다. 성육신은 신학적인 용어이나 이 용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의미를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가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뿐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한이 유한이 된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실체가 된 것이며, 사람과 멀리 계시던 분이 가까이 찾아오신 것이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되었다”라는 말이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무엇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양면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하나님이지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신비이며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믿어야 할 진리 자체일뿐이다. 구약에서도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나타날 메시야는 여인의 씨이며(창3:15)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신18:18) 다윗의 후손이며(삼하7:12) 여호와와 동등하며(사42:1) 슬픔의 사람이라고(사53:3) 예언이 되어져 있다.

한편 그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와 똑같고(사4:2)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한 아들(사9:6)이며 홀연히 그 전(殿)에 임할 여호와(말3:1)이시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는 그의 근본이 상고 때이며 태초(미5:2)라고 하였다.

구약의 이러한 예언을 조화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성육신의 내용이다.

이 진리를 교부들이 칼케돈 신조에서 잘 밝혀주고 있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동일하신 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사람이시며, 이성있

는 영혼과 육신으로 되시느니라.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는 두 성품에 있어서 인식되되 혼합됨이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분리됨이 없으시며 분할됨이 없으시며… 이 연합으로 인하여 양성의 차이가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각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한 품격, 한 개체에 있어서 결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두 품격으로 분할되거나 분리되거나 하지 않으며 한 분이시요…”

4.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진리는 성도인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님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과 유사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의를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이다(요14:16, 14:26).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신비롭게 연합된 것이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자신과는 다른 인격이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성령님과 다른 인격이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신비롭게 연합되어 우리의 인격이 제거되지 않게 하신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결집케 하시고 행하게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는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도록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육신은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희생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말씀’의 영광을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성육신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며 무한한 사랑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선교사가 미개한 나라인 한국에 처음 선교하러 와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가. 그는 미국의 모든 생활, 모든 위치, 모든 편리한 문화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인과 같은 위치와 생활에로 낮아져야 했던 것이다. 사람이 낮아진다는 것도 사랑과 희생이 아니고는 못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의미를 인간으로서 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하였다(엡 3 : 18~19).

5.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종의 모습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였다(빌 2 : 6~8).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성육신의 사랑의 희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다(빌 2 : 5).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하신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마음 뿐만 아니라 실로 낮아져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였다(갈 5 : 13). 같은 내용으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전 6 : 19) 하면서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고전 6 : 22) 하므로 자신이 낮아진 이유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 딸을 위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사랑의 희생이 없이는 빛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육신은 말씀이 실체로 사람으로 보여지게 나타난 것이다. 성육신하시기 전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전달 하기 위한 이유에서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실체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을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6. 성육신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제 이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안에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요 14 : 9~11)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우리의 교회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통해 보여야 한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사 60 : 4, 사 2 : 1~3). 교회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일을 못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못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은 우리가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이요, 그것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뜻이다(단 12 : 3, 고전 10 : 32~11 : 1).

또 하나의 성육신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라는 것이다. 신앙을 가지거나 은혜를 받아 성령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육체(전인적 자아)는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다. 신앙인인 우리를 사도 바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하였다. 예수님도 질그릇이시기에 피곤하셨고 시험을 당하셨고 배고파 하셨다. 물론 죄는 없으시나(히 7 : 26, 히 4 : 15~16) 인간의 모든 연약성을 가지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빛된 삶을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하셨으며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질그릇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질그릇이 갑자기 철그릇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크신 능력은 우리와 연합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빛을 발하려면 우리 자신의 연약성을 바로 알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길이 빛을 발하게 하는 길인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한다. 이 세상은 빛이 없으므로 더욱 어두워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어두움에 대해서 맹목적인 화살을 돌리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성탄을 맞는 성도의 자세



장 정 일 목사 (전도위원장)

아기 예수님 성탄은 우리 믿는 성도들만의 명절이 아니라, 이제是我们 민족의 명절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전 세계가 축하하는 명절이 많지 않은데,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온 인류의 명절로 축하하게 된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 성탄절은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럽고 생생하기만 하다. 저녁마다 모여서 성극 연습도 하고 찬양 준비하던 일, 만국기를 띄우고 별을 만들며 트리를 꾸미던 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축하 순서를 갖고, 그날 온 밤을 새우면서 교회에서 지내던 일, 추운 새벽에 어른 새벽송 틈에 끼어 따라다니던 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는 기대에 부풀어 잠을 못이루던 일, 성탄절 아침 예배와 시상식에 상을 타던 일 등.

그러나 요즘의 성탄절은 변색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다. 어느 해인가 성탄절야에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났던 일이 생각난다. 동심의 세계로 이끄는 산타할아버지는 거리로 뛰쳐나오고, 착한 일을 많이한 아이들에게 주던 선물은 백화점으로 다 가지고 갔다. 심지어 유흥장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갔으니 세태가 타락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세태가 험악하여지고 여흥의 축제로 전락한다 해도 교회와 성도들마저 의미를 상실하고 방향 감각을 잃을 수는 없다.

우리는 알파한 상흔에 눈이 먼 장사꾼들에게 아기 예수님 성탄 축하를 빼앗길 수 없으며, 명절로만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적 의미를 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성탄했을 당시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오늘날 성탄을 맞는 우리 성도의 자세를 바로 잡아 보고자 한다.

1.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바로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

첫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그릇되게 아기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많았다.

(1) 권력형 성탄축하객(마2 : 4 - 8)

첫째로 권력형 성탄축하객이 많이 있다. 해롯 대왕은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으나, 그의 진정한 야심은 권력과 세력을 유지하는데 있었지, 아기 예수님의 성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살펴보자.

(2) 아부형 성탄축하객(마2 : 4 - 6)

둘째 아부형 성탄축하객이 많이 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주요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나, 막상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알지 못했었고, 해롯의 부름을 받고 탄생의 사실을 알았으나 성경을 풀어 베를레헴에 태어나실 것까지도 알면서도, 두어 시간이면 갈 수 있는 25리 길을 가지 않았던 무리들이다. 성경 연구와 성전봉사에는 일생을 헌신했으면서 어찌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으려 두 시간을 드리지 못했을까? 그들은 영적 소경이요 권력에 아부하는 실천 없는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해롯 왕이 무서웠고, 세력잡은 자의 앞잡이였다. 오늘날 우리 중에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월이 길어 보여서 아기 예수님을 바로 모시지 못하였는지 자신을 살펴보자.

(3) 여론형 성탄축하객(마2 : 3)

셋째로, 여론형 성탄축하객이 많이 있다. 아기 예수님 탄생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은 왜 소동을 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열광하다가 며칠이 못되어 못된 무리의 선동을 받고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외쳤던 여론에 약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베를레헴 거민 중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없어 구유에 오색이만 했던 인색쟁이들이었다.

아기 예수님을 누가 무어라해도 모셔야 할텐데 친구나 불신 이웃의 말과 메스껍게 눌러서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대로 끌려가서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어리석고 인색한 때는 없었는지 살펴보자.

권력형, 아부형, 여론형 축하는 잘못된 성탄축하였다.

2.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바로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첫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바로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다.

(1) 경배형 성탄축하객(마 2 : 1 - 2, 9 - 11)

동방박사들은 먼곳에서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들의 신분은 존경 받을만한 분들이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섰다. 그들은 노력과 희생을 치루면서도 아기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은혜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들은 시간과 몸만 아니라 마음도 드렸고 마음만 아니라 물질도 드렸다. 오늘날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주는” 무례를 범하는 때는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자.

(2) 순종형 성탄축하객(눅 2 : 12, 15 - 17)

둘째로, 순종형 성탄축하객이 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고 소박한 목자들이었다. 천사의 음성과 찬송을 듣고 그들은 거역치 않고 순종했다. 아기 예수님은 거할 곳도 없었고 사람들의 눈에 호모할만한 뛰어난 점도 없었으며, 병자를 고치는 이적도 행치 않았고 오병이어의 능력도 바다 위로 걸으시는 기사도 행치 않으셨다. 그럼에도 순종하며 겸손히 경배하였다. 우리가 만약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경에도 불구하고「의 순수한 신앙으로 아기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살펴보자.

(3) 말씀형 성탄축하객(마 1 : 18 - 25, 눅 1 : 26 - 38, 2 : 19)

세째로, 말씀형 축하객이 있다.

요셉도 그렇거니와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했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과 이 모든 응답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며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를 기억하자(요 1 : 14) 말씀(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은 곳에 오신 것은 겸손을 뜻하며,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수난을 뜻하며,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사명과 희생과 부활과 충성을 뜻한다. 나는 말씀으로서의 아기 예

수님을 맞이하는가 아니면 댓가에 대한 사례로써 아기 예수님 맞이 하는 축하인가 살펴보자.

3. 1983년 성탄맞이에 대한 제언

금년 아기 예수님 성탄을 어떻게 맞이 할까?

먼저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겠고 나아가서는 소외된 계층에도 큰 기쁨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영혼에 모시지 못한 불신 세계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는 성탄일이 되어야겠다.

첫째로, 성탄은 인류의 기념잔치가 되게 하자.

기분에 들떠 흥청거리면, 상인들과 휴흥업소에 이용당하기 쉽고, 그렇다고 조용히 고요하게 가정에만 묻혀 있으면 다른 종교인들이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와의 아들이 남의 말에 의해 나귀를 매고 가는 여론의 포로일 수도 없다. 성탄일을 성탄일되게 하고 전 인류의 기쁨과 명절이 되게 하여야 한다.

둘째로, 성탄은 교회의 불변하는 참된 기념잔치가 되게 하자.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면 인류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은 예수님의 탄생이다. 성탄맞이를 행사에 머물게 하지 말고 교회적인 축일로 승화시켜 본 뜻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자.

어려운 성도를 위로하여 그 지역의 어려움 당한 불신 가정을 초청하거나 방문하여 위로하므로 성탄을 심어주고 구원의 복음의 선물을 전달하는 기회로 삼자. 구제활동과 위문활동을 성탄에만 하지 말고 지속적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성탄을 가정의 감격스러운 기념잔치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12월은 우리 가정에 생일을 맞이한 식구가 한 분 계신 것을 상기시키고, 그분의 생일을 우리 가정이 축하하는 잔치를 정성껏 준비하고자 가정예배 때, 성탄준비위원회를 구성케 하자. 가정예배담당, 축하선물예금(현금)담당, 장식담당, 불우이웃선정담당 등등 필요한 부서를 만들어 아이들과 온 집안이 책임을 분담하여 준비하자. 가정예배를 드리기 힘들었던 가정은 이 기회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고, 생활의 규모가 없었던 가정은 예수님 모신 가정 중심 생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며, 인색했던 나 중심의 생활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는 기회로 보내자.

성탄절에 흠어진 식구가 다 모이지 못한다 해도 핵가족만이라도 모여 자그마한 케익에 촛불을 밝히고 1983년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교회다운 교회 - (I)

아브람 교회

(창14:13-24)

조영길 목사

(심방부 | 지구담당)

(소망부 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성령이 요구하고 계시하는 교회를 우리는 다 소원한다. 교회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다 원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 중에는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중현교회가 새성전 건축과 이 전을 바로 눈 앞에 두고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중현교회에 주신 사명적인 측면에서도, 이 민족이 바라보며 세계 교회가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 추구를 위한 시도를 성경에서 찾아 봄직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동안 성경을 읽고 상고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이 계시하는 이상적인 교회상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던 중에 이번 기회에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대표적인 일곱 개의 교회상을 살펴 보면서 우리 중현교회가 그같은 교회로 남아갔으면 한다.

1.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회

아브람교회의 특징 중에 그 첫째가 교인을 잘 가르치고 훈련한 것이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여 그 말씀을 생활화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이 말씀의 뜻은 원어상 그 문자적으로 교육을 받은 자 혹은 훈련을 받은 자란 의미이다.

*학자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신앙의 원리를 가르쳤다고 하였다.

잘 가르치고 훈련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다. 부흥하는 교회 실력있는 교회는 바로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회이다. 가르치지 않는 교회와 배우지 않는 교인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고 필경에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교회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딤후4:13) 왜 교회가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하는가? 그것은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골1:28).

머취(James DeF. Murch)는 교회 교육의 목적을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여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여 생활하도록 하겠는가?

로이 B 주크(Roy B. Zuck) 박사도 교회 교육의 삼대 원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의 교육과 중생한 교사와 성령의 사역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교회는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면 아니된다.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도 반드시 중생한 교사에 의해서 성령의 강력한 사역에 의존하여야 한다.

2. 선교(전도)하는 교회

아브람 교회는 열심으로, 아니 적극적으로 선교하여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여 내었다. 당시 아브람교회에서는 안으로는 교육하고 훈련하여 믿음에의 실력을 길렀고 밖으로는 선교하여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원하여 내었던 것이다. 아브람은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들었고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 벨레에 올라와서 장막을 쳤으나 초원은 쏙고 가축이 많아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가 다투었다. 롯은 결국 요단들과 소돔성에 이르는 곳에 거하고 아브람은 헤브론 땅에서 거하였다. 마침 그때에 소돔성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 동맹한 네 나라 왕들이 소돔성을 치고 노략할 때에 롯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롯과 그의 식구들

도 모두 사로잡아 갔다.

롯의 집을 치고 재물과 생명들을 빼앗아간 원수들은 사단의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롯을 그냥 둔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절대로 풀려나올 수가 없다. 절망적이다. 롯이 그들라오 멜에게 붙잡혀 갔다는 절박한 소식을 아브람교회가 들은 것이다. 이때에 아브람교회는 그동안 교육받고 훈련하여 힘을 기른 특공대 318명을 동원하여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롯과 부녀자들과 인민을 다 구하여 내었던 것이다 (16절).

당시 아브라함교회의 318명은 특수 교육을 받은 전도특공대로 보아야 한다.

학자들은 당시 아브람 집에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Thomas Whitelaw)

아브람의 가정교회는 주전 1913년 경으로(F. C. Thompson)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 된다.

그당시 아브람 가정교회에 1,000명이 더 모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다.

오늘에 와서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보다 오히려 더욱 비중이 큰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리적으로 성장하기 마련이다. 더우기 선교하는 교회는 급성장한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가정과 이웃에 사단에게 끌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단은 그들의 마음도 가진 것들도 생명도 결국 빼앗고만다. 이들을 그냥 보고만 있는 교인, 방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유1:23)고 하신다.

3. 예수님을 모신 교회

아브람교회가 선교특공대의 활동으로 롯의 가정을 구출하여 승리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찾아 오셨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아 틀림이 없다. 그는 살렘왕(평화의 왕)시9:6하, 히7:2, 혹은 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히5:5)이요 그에게는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였다(히 7:1-3참고) 이같은 이가 그 누구겠는가? 멜기세덱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아니 화옥 이전의 예수님이였다. 이 같은 멜기세덱이 아브람교회를 찾아오신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지상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요(딤후3:15)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골1:24)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요(행20:28), 예수님의 교회이다(마16:18)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교회와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못된다. 예수님은 그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들)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계2:1,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교회는 그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고 모이는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회당일요 집회 장소이지 참된 살아있는 교회는 되지 못한다. 그 반대로 사람보기에는 초라하고 모이는 수도 많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참된 교회요 그 교회는 금성장하고 발전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당시 아브람교회를 보라.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아브람과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않았는가?(19절)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20절)라고 하였다. 부흥하는 교회, 복 받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이다.

4. 성례식을 바로 행하는 교회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교회는(1)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2) 성례가 집행되고(3) 성도들이 교제하고(4) 말씀으로 교제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성례가 집행되어져야만 한다. 교회의 성례도 정당한 성례로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성례라야만 한다. 로마 천주교회(Roman Catholic Church)에서는 일곱 가지의 성례를 주장한다.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그 일곱 가지의 성례

는 다음과 같다.

- (1) 영세(Baptism)
- (2) 견신(Confirmation)
- (3) 성찬(Holy Eucharist)
- (4) 고해(Penance)
- (5) 종부례 혹은 관유(Extreme unction)
- (6) 신품 혹은 안수(Holy Orders)
- (7) 혼례(matrimony) 등 이다.

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의 성례 중에 세례(천주교회에서는 영세라고한다)와 성찬(천주교회에서는 성체라고도 하여 화체설을 주장한다(주: 화체설이란 성찬예식을 집행하는 신부가 기도한 후에는 떡과 포도즙이 바로 실재적인 예수님의 상사이다)그러나 오늘 우리 개혁신교에서는 성찬예식은 은혜의 방편이요 기념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신령한 교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이다(눅22:19 고전11:24-25)

이 두 가지 성례만이 진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마28:19 눅22:19-20)

그러므로 교회는 사단과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여 신앙을 고백할 때에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그들에게 성찬예식에 참여하도록하여야 한다.

물론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구절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보아서도 판단할 수가 있다. 원입한 초신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성찬예식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는 이들은 절대로 성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성찬은 합당하게 참여하여야 하고 먼저 자신을 살핀 후에 참여하여야 하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참여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에 빠지게 되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다(고전11:27-28) 하야만 참된 교회는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어져야만 한다. 당시 아브람교회에는 멜기세덱이 직접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와서 아브람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며 축복하였다. 이같은 것은

신약교회의 성찬예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진다. 학자 부쉬(Bush)는 이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만찬 제도의 상징이었다고 하였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면 아브람교회의 성찬예식은 마치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성찬예식을 행하심과 같은 성격으로 볼만하다. 주석학자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런 이름으로 아브람에게 알려졌다고 하였다.

5. 물질관이 바른 교회

당시 아브람교회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래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물질관계가 분명하였다. 그것도 깨끗하고 진실하였다. 교회의 진실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회가 물질을 바로하지 못하면 언제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며 부패의 원인이 된다. 아브람교회는 소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소돔왕은 나머지 노획물을 아브람에게 가지라고 하였지만 아브람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가지지 아니하였다. 불의한 재물이거나 불로소득은 원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노동의 댓가를 족하게 여긴 것이다. 교회나 교인의 경제관이 뚜렷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를 바로 할 줄 아는 교회와 교인이 되어야한다. 당시 아브람과 그 교회가 성경상 최초로 십일조를 실시하였다. 이것이 후일 모세의 율법에서 구체화되었고(레27:30-33민18:21-32) 예수님이 재확인 하신 것이다(눅11:42)

이런이들은 십일조 생활은 구약 율법시대의 산물로서 오늘 은혜시대에 와서는 해방 받았다고 하나 그런 것이 아니다. 십일조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받은 성도들의 최소한의 감사생활의 표준이요 이것이 흔들리면 절대로 나의 마음과 몸과 생명과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없게 되며 성도의 감사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만다. "우리의 위대하신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경의를 표하여야 하며 우리들 각자는 그분을 우리의 왕과 제사장으로 겸

손히 인정하고 우리는 모든 것의 실
일조 뿐 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바쳐야 함을 유
의하자!" (Mathew Henry) 십일조
생활을 바로하는 교회는 복을 받아
절대로 교회적으로나 교인 개개인들
이 궁핍하지 않다. 풍성하고 넉넉하
여 남에게 나누주며 힘있게 일할 수
있게된다. 하나님과 수직선적으로
경제관을 바로 맺고 수평선적으로 이
웃과의 경제관을 바로 맺을 때 물질
면에서 깨끗한 자가 되며 하나님으로
부터 복을 받는다. 감사의 생활은 신
자들의 신앙고백이요 신앙의 척도이
다. 감사생활을 잘하는 자는 믿음도
그만큼 더 잘 자라나고, 감사가 없는
자는 그만큼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 밖에 없다. 감사생활은 분명히
믿음과 축복에의 지름길이 된다.

이상과 같이 주전 1900여년 경의
아브람교회를 다섯 가지로 살
펴보았다. 이같은 아브람교회는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원
한 표본이다.

교회다운 교회 참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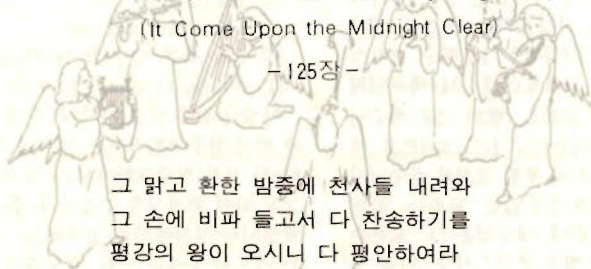
오늘의 교회는 교회 난립이요, 교회
흥수요 교회 천지다. 바른 교회관을
가진 교회 교회다운 교회 당시 아브
람교회같은 교회가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지상교회는 언제나 그렇
지 못하다. 진과 위가 섞여있고 성과
속이 병존하는 곳이 이 지상이고 보
면 부흥과 발전일로에 있는 이 현실
교회상을 그냥 기뻐만 할 입장이 못
된다. 바른 교회상, 바른 교회관의
정립과 성경에 나타난 원색적인 교회
상 추구에도 눈길을 돌려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세 교회로
서의 사명을 다 하여야겠다. ✚



그 맑고 환한 밤중에

(It Come Upon the Midnight Clear)

- 125장 -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들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분요 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온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
며, 세계의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
다리는 즐거운 날이 있다면, 그것
은 크리스마스일 것이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없
이 기쁜 날이다. 그러기에 어떤이
들은 하얀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라고도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온 세상이
흰눈으로 덮여서 그렇게 부르는 줄
아나, 그 보다는 정결하고 거룩하
다는 뜻과 기쁨의 상징인 흰색을
들어, 이 위대한 기쁨을 표시하는
말로서의 White Christmas라고
생각함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
쁘단 말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위
대한 사랑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
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
내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
심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며, 우리
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
물인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 찬송은 미국 뉴잉글랜
드 출신의 에드먼드 해밀턴 씨어
즈(Edmund Hamilton Sears) 박
사가 크리스마스 캐롤로써, 1949년
39세때 쓴 것으로, 첫 크리스마스
의 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온세상이 고요한 중에 천사들의
노래가 베들레헴 온 별관에 울려
퍼졌던 것을 묘사하고 있다.

지금의 크리스마스 전날 밤과 크
리스마스 밤의 요란스러움과 얼마
나 대조적인 가사인가? 눈물이 나
오도록 감사하고 기쁜 이 날을 케
락의 날로 삼아 흥청거리며 밀려
다니는 수 많은 군중들, 이들에게
도 그 옛날 베들레헴에 고요히 울
려 퍼졌던 천사들의 노래가 들려
지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
이다.

해마다 맞이 하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에 고요한 밤 하
늘에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찬송
을 들으면서 박사들이 예물을 드
린 것처럼,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
하는 예배와 함께, 성탄의 진정한
뜻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은혜스런
성탄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 찬송의 곡은 1850년 리차드
윌리스(Richard S. Willis)가
작곡하였다.

이 찬송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각 가정을 찾아 오
셔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부어
주시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
기를 중심으로 기도한다. ✚

김 창근 목사 (예배위원장)

여자에게서 생명과 구원이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 4 : 4 ~ 5)

송 환 창 장로

프롤로그 (칠후같은 어두움) (막이 오르지 않은 캄캄한 무대)

30세가 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온 노(老)총각의 입을 통하여 들려오는 사탄의 목소리.

「나는 육신도 건강하고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지팡이(종교)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1 막 1 장 (아직도 어두움이 가시지 않음) (1960년 봄) (무대 중앙에는 당회장님, 그리고 좌우에는 장로님들이 좌정하고 계시다) (학습문답 장소)

한 노부인이 청년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나 안심이 되지 않는 노부인은 다시 맨 끝에 앉아 계신 장로님께 다가가서 콧속말로 부탁(?)을 한다.

「우리 사위(될 사람)입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그 장로님은 차례로 다음 분에게 전언통신(?)을 하신다.

1 막 2 장 (그해 가을) (세례문답 장소)

무대, 등장인물, 분장, 효과 및 대사(台詞)는 전과 같다.

2 막 (새벽은 왔지만 아직도 어두움) (충현교회 대예배 장소)

발소리를 죽이며 한 쌍의 부부가 조용히 들어와, 주위의 눈치(?)를 살피면서 나란한 자리를 잡는다 (우스운 얘기지만 그때만 해도 남녀교인의 좌석이 줄을 친 것처럼 뚜렷이 갈라져 있었을 때이었음으로)

여인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봉독할 구절을 찾아 성경책을 펼쳐서는 남편에게 넘겨주고, 또 찬송 순서가 되면 부를 곡(曲)을 찾아서 손가락으로 짚어 준다.

남편이 지긋이 눈을 감고 도원경(桃園境)을 해매 기라도 하면 팔꿈치를 사정없이 툭툭 친다.

3 막 1 장 (차차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로부터 5년쯤후) (어느 날의 아침 식탁) 아버지가 흰 손으로 와이샤쓰 단추를 끼우면서 오른 손으로는 술잔을 들고 덤실 밥술을 뜬다.

“아빠, 기도 안하고 밥 먹올래?”

이 가정의 율법학사는 한치의 어긋남도 용서치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술잔을 다시 밥상 위에 내려놓고 정좌해서 눈을 감는다.

다섯 살짜리 첫딸(엄연한 유아세례교인)의 「아멘」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허둥지둥 조반(朝飯)을 먹는다.

3 막 2 장 (서서히 아침햇살이 비추임) (그로부터 다시 2년쯤 후) (어느 날의 취침시간)

아빠는 신문지를 넘기고, 엄마는 바느질, 언니는 그림책에 열중하고 있어 모두가 좀처럼 취침할 기색이 없자, 이속고 졸음이 와서 눈꺼풀이 슬슬 감기는 다섯살짜리 둘째딸이 전 가족을 모두 이부자리 위에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한 후, 엄숙하게 대표기도를 올린다.

유아세례를 받으신 우리 가정의 여전도사(?)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졸려서 죽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주무세요, 그러면 우리들도 자겠습니다. 아멘”

3 막 3 장 (해가 중천에 떠서 밝은 낮) (꽤 세월이 흘러서) (충현교회 마당)

정다운 부녀(父女)의 대화(對話).

“아빠, 난 오늘 「시와 찬양의 밤」의 성가연습이 있어서 좀 늦어질 꺼야. 이 까운과 짐을 먼저 집으로 갖다 뒤, 내 가방은 꼭 차서 더 들어가자가 알아서 그래”

성가대원인 세째딸은 어찌나 믿음이 신실한지, 집사 엄마나 장로 아빠보다도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고 열심이 다. 할렐루야!

4 막 (1983년 11월 어느날) (한방에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고 있다)

출석인원은 장로 1, 여집사 1, 여교인 3 (입교 2, 유아세례 1).

이렇게 5명이 모여 공동치리회(?)를 개최하지만 결과는 보나 마나 뻔하다. 홍일점(紅一點) (?)인 장로가 고군분투(孤軍奮鬪) 끝에 4 : 1로 참패하기 마련이니까.

까닭인즉 하나는 여성상위시대라는 시대적 조류(潮流) 탓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주권(主權)이 평신도에게 있다는 우리 장로교회의 헌법(憲法) 탓이니 이것을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에필로그

나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어머니(고(故) 김 학이 권자), 그리고 내 고향에서 항상 편만하고 위로하고 경계해 줌으로써 불안정(不安定)한 믿음의 길을 바로 이끌어 준 사랑하는 아내(최 경상 집사)와 세 딸 (전경, 미경, 윤경)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또 나에게 세례를 주시고 약혼식과 결혼식의 주례는 물론, 안수집사에서 장로장립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바로 인도해 주신 믿음의 아버지, 충현교회 당회장이신 김 장인 목사님에도 이 글을 통해서 심심한 감사를 올리는 바이다. †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33 : 29)



안 윤 진 권사

(권사회 회장)

성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3 : 15)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의 실생활에 적용하여 비추어 볼 때, 시115편 12~15절의 말씀과 같이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온 식구를 구원하신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이야기 나눴으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저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지않는 남편의 심한 핍박 속에서 5남3녀의 자녀를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았지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내세에 대한 소망은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 지혜와 인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저 혼자 힘으로는 베풀었으나 성경말씀대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딤후3 : 14~17) 키우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그리고 상석(上席)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자녀는 재워놓고, 국민학교 이상의 자녀들은 매일 새벽기도부터 시작하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돌아가며 봉독하고 기도도 차례대로 시키는 가정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저녁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사회·기도·성경봉독 등을 각각 맡아하고 통성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은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신 생활이었었습니다.

주일에는 고3학년 자녀도 개인공부를 앎고 안식하며, 교회에 가서 예배·봉사 및 전도하는 등, 각자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서로 우애하며 아끼지언정 다투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않는 남편도, 남의 집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 처럼 교회에 나가라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선 저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금식과 철야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탕자처럼 가산이 기울지라도 주님 품안에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해서 빚 때문에, 30만원짜리 셋방으로 쫓겨나와, 보따리 행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에 남편은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옴의 나중이 더 잘됨 같이 축복하여 달라고 매일 새벽과 밤마다 기도드렸습니다. 또 응답해 주셔서 고급주택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이어서 물질에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찬253장)

무엇보다도 축복하여 주신 증거는, 현재 직계가족은 7남매가 결혼해서 손자 손녀 15명, 도합 32명 가운데,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권사·집사 등 직분받은 자가 14명이며, 네째는 서울대학병원 의사, 다섯째는 연대를 졸업하고도 미유학 중인데, 특히 감사한 것은, 출가한 딸들과 분가한 자부들이 한 달에 한번씩 매일쫓주 화요일 11시는 『가정월례예배』로 정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각각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 찬거리로 식사 준비해서 정답게 함께 식사하며, 그 후에는 서로 그간의 은혜받은 얘기를 주고 받습니다.

아들들은 회사에서 매주 월요일 목사님 모시고 직원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생활을 수년 동안, 계속하고 있으며 고넬료의 가정처럼(행10장)기도와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가정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저에게 권사회 회장으로 일하게 하시니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날에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움을 벗기고 기쁨으로 떠 댈우셨나이다’ (시30 : 11) 또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것 나이다. †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3 : 15) -

감사의 편지

주님.

하루가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만해도 어두움이 얼마나 내 마음을 붙들었는지요. 그러나 오늘은 조용하고 신비하게 솟아오르는 평강을 느끼며 나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의 두 발자욱. 하나는 내 것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네. 어느날 고난의 뒤를 돌아보니 발자욱 하나뿐 '주님, 주님은 나와 같이 하시지 않으셨군요. 평안했던 지나온 길에는 두 발자욱이었지만 보세요. 내 아픔의 길에는 주님의 발자욱은 보이지 않네요.'

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너를 업고 걸었도라"

나의 지난 고난의 모든 날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곤고할 때 주님은 언제나 찾아와 주셨지요. 이웃과의 좋은 대화를 통해, 목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늘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나는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넘치는 생활의 기쁨도 쏟아지는 큰 슬픔도 없었던 시간들, 그러나 변화없었다고 무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그 모든 시간들이 늘상 내 손을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선한 인도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 동안 주님이 저에게 펼쳐주실 시간이 얼마나 되며,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올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욱 깨끗하고, 인내하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시간들을 얻어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쪼개고 또 쪼개어서도 남에게 사랑하기를 인색하게 굴었던 저에게 사랑을 배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가슴속의 사랑을 늘상 따스하게 태우시며 주님의 일이라면 새로운 놀이에 열중하는 아이처럼 되시는 K 부감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 그 자체를 마주함을 느끼게 하는 S 전도사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없이 언제나 환하게 웃음짓는 J 선생님,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면서 없어지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꼭 어

느 땀가는 말씀의 위로에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 손을 잡는 키가 작고 얼굴이 둥근 친구 A.

주님 이 분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분들께 사랑을 주고 있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의 좁고 인색한 메마른 마음을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라"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감히 도달할 수 없는 빛나고 높은 이상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나의 작은 생활 가운데서 자그마한 손에 잡을 수도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될 수 있음도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작은 하루

오늘의 작은 하루

그리고 내일 또 내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나의 하루하루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조용히 부서져 가는 모습에서, 남을 용납하여야 함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언젠가는 그 영광돌림의 참 뜻을 넘치는 물처럼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머리 위 시원한 그늘을 짓게 하던 박영쿨의 딸라 집을 인하여 죽기를 구한 요나와 같은 지이지만, 언젠가는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한 그릇의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

최 영 옥 (유년부 교사)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7)



베티의 선물

먼 옛날, 유대땅 베들레헴에 베티라고 하는 어린 목동이 살고 있었어요.

베티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베티의 아빠는 원래 양치는 훌륭한 목자였으나 몇년 전, 양떼를 몰고 오다가 어두컴컴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오랫동안 앓다가 베티랑 엄마만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베티는 그 후, 양치기 아저씨들을 따라 베들레헴들로 나가서 아저씨들과 함께 양을 치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베티의 엄마는 어린 베티가 등에서 돌아오면, 깨끗이 얼굴을 닦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베티의 옆에서, 옛날 아빠가 보시던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주곤 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재미있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게서 실로가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었어요.

그래서 베티는 “엄마! 베들레헴이 여기 말고, 또 있어요?” 하고 여쭙었어요.

“아니, 베들레헴은 이곳 뿐이야”
“그럼 실로가 뭐야요?”
엄마는 베티의 커다랗고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면서 “실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네-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동네에 오세요?”
“그래, 베들레헴에 오신답니다”

베티는 너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 오신다면 베티와 놀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베티는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요.

“엄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오시는 거야?”
“글쎄,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어.”

“엄마, 내일 쯤 오실까?”
“글쎄……”

“그럼, 한달 후에 오실까요?”
호기심이 강한 베티가 귀찮도록 묻자,

“그래, 한 달 쯤 있다가 오실거야”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베티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달 후에 오실 줄 알고, 매일 같이 머리맡 벽에 금을 하나씩 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나는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등에 나가서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왔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지로 새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티가 하는 일을 엄마가 보게 되었어요.

“베티야, 너 무얼 만드니?”
“예, 엄마, 지금 하나님 아들에게 드릴 선물을 만들어요.”

“뭐? 선물을 만들어? 하나님 아들에게 드릴 선물을 만든다구,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시는데?”

“엄마가 지난번에, 한 달 후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꼭 한 달이 되는 날이라구요. 보sey. 하-나, 둘, 셋, ………모두 스물 아홉개잖아요, 이제, 하루 밖에 안남았어요”

하고는 머리맡에 그려놓은 표시를 엄마에게 가리켰어요. 그때서야 엄마는, 한 달 전의 일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엄마는 몹시 당황했어요.

“그렇지요 엄마, 이제 하루 밖에 안 남았어요”
하고는 다 만들어진 새총을 들어 보이며, 얼굴 가득 웃음을 띄우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새총을 드릴 건데, 엄마는 무얼 드릴거야?”

베티의 엄마는 그만 당황하여 “응, 나는 이 장갑을 드릴거야”

하시고는 베티에게 주시려고 툼툼이 짜서 만드신 하얀 장갑을 베티에게 내밀었어요. 베티는 그 장갑을 손에 끼어 보고는

“엄마, 이 장갑이 하나님의 아들 손에 꼭 맞을까?”
엄마는 또 다시 당황했어요. 그래서

“으-응,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손도 크고, 발도 크실거야”

베티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정말 이 장갑이 맞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새총놀이도 하고, 병정놀이도 하게…”

하고는 새총을 만져 보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병정놀이하는 꿈을 꾸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베티가 잠을 깨었을 때, 베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베티의 엄마는 깜짝 놀라서 의사선생님을 불러왔어요. 의사선생님이 다녀갔지만, 베티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렸어요.

“엄-마-” 베티는 아주 작은 소리로 엄마를 불렀어요.

“양치기 아저씨들도 다 양치려 들에 가셨나요?”
“그래 오늘은 날이 추워서, 조금 전에 나갔답니다”

“나도 양치려 나가야 될텐데…”
베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베티네 열집은 커다란 여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언제나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붐볐어요. 그런데요 며칠 사이엔 열집 뿐 아니라,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깊은 잠에서 깬 베티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응, 오늘은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호적하라고 해서 고향 찾아온 사람들 때문

에 이렇게 시끄럽단다”

“호적은 왜 하는거야?”

“그것은 이 동네와 온 세상에 몇 사람이나 살고 있는지 알아 보려고 그러는거야”

“아이, 시끄러”

하며, 베티는 침대 옆으로 돌아누웠어요. 창문새로 들어오는 별빛이 오늘 따라 유난히 밝게 보였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더욱 총총히 박혔구요.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던 베티는 별안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어요.

“엄마! 저것 봐! 큰 별 하나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베티는 소리치며 엄마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놀란 눈으로 그 별을 따라 움직였어요. 베티는 이제까지 그렇게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움직이던 별이 바로 베티네 집 위에 멈춰 섰는게 아니겠어요! 베티는 너무 신기해서, 몸을 간신히 움직여 창가에 나와서 그 별을 바라 보았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베티가 양치려 다니던 들판에서 별안간 하얀 광채가 비치더니,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이웃집 여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담뿍어 들려왔어요. 아니! 그런데 여관 집에서 광채가 빛나고 있지 않겠어요. 또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구요. 베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어요.

이때였어요. 누군가가 베티네 대문을 쾅! 쾅! 두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베티 어머니-, 베티 어머니-, 빨리 나와 보세요. 여관집 마구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베티 어머니는 문을 열른 열며

“예, 무슨 일인데요?”

“아—글쎄 여관집 마구간에서 마리아라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마구간의 모든 짐승들이 경배하고 목자들이 몰려와 경배하고, 또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님들이 오셔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에게 드렸대요”

“네-에?”

베티와 어머니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서 서로 얼굴만 쳐다 보았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박사님들과 목자들이 모두 경배하는데, 그 아기는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 아들이구요. 이름은 ‘예수’ 라고 하던데요!”

베티의 어머니는 동그란 눈으로 베티를 바라 보았어요. 그래서 베티는 얼굴이 빨갛게 홍분된 채로

“맞아! 맞아! 오늘이 그 날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던 그 날이야”

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베티는 빨리 아기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어요.

“엄마, 우리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봐!”

하고 졸라대며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베티는 힘이 들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겨우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한 손에 커다란 새총을 꼭 움켜쥐고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마구간 쪽으로 걸어 갔어요.

벌써 그 곳에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과 동네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어린 베티는 엄마에게 의지하여 목자들이 서있는 뒤로 살짝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빠꼼이 내밀고, 아기 예수님을 쳐다 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일이지요? 글쎄 베티와 병정놀이 할만큼 큰 아이가 아니라, 베티보다 훨씬 작은 갓난아기가 아니겠어요. 베티는 걱정이 되었어요. 베티가 줄 선물인 새총은 아기 예수님이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베티는 살금살금 기어서 새총을 아기 예수님이 잠들고 있는 무릎 위에 살짝 올려 놓았어요. 그때였어요. 새근새근 잠자고 있던 아기 예수님이 눈을 살며시 뜨고는 생글생글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손으로 새총을 만지작 거리는 것이었어요.

베티와 아기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티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어요. 아니 얼굴 뿐만 아니라 온몸이 불에 달군듯 몹시 뜨거워 졌어요. 베티는 너무 뜨거워서 허겁지겁 그 곳을 빠져나와, 넓은 들판으로 달려 나갔어요. 한참 달리다가 차디찬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빛나는 눈을 생각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웬 일이지요. 이제까지 아프던 몸이 지금은 조금도 아프지 않고, 썩은 듯이 나아 버린게 아니겠어요! 베티는 하도 이상해서 그 자리에서 깡충깡충 뛰어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엄마가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짜 놓으신 하얀 장갑이 생각났어요. 커다란 베티의 새총을 받아주신 아기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엄마가 짜 놓으신 커다란 장갑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티는 그 장갑을 가지러 소리치르며 집으로 달려 갔어요. 왜냐하면 베티는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늘의 별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고, 그 커다란 별은 어린 베티에게 미소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예수님은 그 마구간 구유 위에서 평화로운 목자들의 노래 소리와 영광의 하얀 광채에 싸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

이 대길 (도서실 사서)



작은 감사

황금 물결치던 들판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가을은 점점 깊어만 간다.

어디선가 멀리서 가을게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을 더욱 깊어지게 한다. 그리고 어느덧 겨울이 문 앞에 성큼 다가온 듯 하다.

이러한 날이면 중학교 다닐 때 보아오던 신문팔이 아이들이 생각난다. 작년 이맘 때쯤 학교 가는 버스 안으로 신문을 한 아를 안고 버스에 오르는 아이들이 있었다.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인지 옷차림은 매우 초라했고, 영하 십 몇도를 밀도는 추운 겨울인데 신발조차 신지 않고 맨발로 차에 오른 아이도 있었다. 동정을 호소하는 듯한 몇 글자 적혀진 종이를 돌리며 신문을 팔아주기를 원했다. 그 손놀림은 무척이나 사무적이었다.

그들의 눈은 부모님의 사랑을 한껏 받아보지 못한 원망이 가득 찬 듯 했다.

버려진 아이들.

그때 나는 부모님께 감사는 하지 못할망정 불평하던 철없던 행동이 생각나 부끄러웠다. 나도 만약 버려진 아이라면 그들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있는, 그 아이들을 보며, 나에게 배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감사를 드렸다. †

고등부 1년 황 옥수

학생 심방을 마치고

— 유년부교사 오 경 록 —

군복무를 마친 후 나는 올해는 봉사하는 일보다는 좀 쉬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주님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큰 사랑이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 나는 유년부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다.

3의 7반, 7명(재적수 10명)의 까만 눈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웃음도 적은 사랑도, 그 어느 것도 주지를 못하고 돌려 보내었다.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나는 곰곰히 생각하며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채워 주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라고 나는 기도했다.

곧 이어 학생 심방기간이 되었다. 나는 2주에 걸쳐 심방을 하였다.

어떤 아이는 40분이나 걸리는 먼 곳에서 걸어온단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과 떨어져 할아버지 댁에서 살고 있단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기 결석생의 집을 방문 했을 때, 믿지 않는 부모님인데도 뜻밖에 무척 반가와 하시며, 잘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시었다.

심방을 하는 날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시간을 가졌다.

뿌듯하게 충만해 오는 은혜와 감사!

그 후로 아이들을 좀 더 이해 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주님이 내게 배풀어 주신 사랑의 빛은 그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 하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기도하는 교사가 되도록 나를 굳게 다지신다. †

□ 신간 서평

— 참된 그리스도인의

존 칼빈 지음

삶을 위하여

오 태용 옮김

본서 『Golden Booklet of the True Christian Walk』는 De Vita Hominis Christiani,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기독교 강요』 제3권 제6장의 현 표제)라는 제명(題名)으로 1550년에 라틴어와 불어로 처음 출판되었으며, 후에는 역시 비슷한 이름으로 영어(1594) 및 독일어(1857)로도 출판되었다. 화판으로는 1858년에 출판되었는데 표제로는 최초의 것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세상에 이렇게도 심오하면서 또 그렇게도 보편적인 이 책과 같은 경건 서적이 달리 없다. 문제, 정신

및 생생한 표현에 관해서는 어거스틴의 『고백록』(Confessions), 토마스 아 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n of Christ), 번연의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 같은 대작들과 겨룰 수 있는 작품이다. 다만 이 책만이 보다 짧고, 보다 진전하고, 보다 온건하고, 보다 힘차고 정곡을 찌른다. 그러므로 본서는 순수한 종교적 성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 마땅하지만 특히 매일의 삶 속에서 종교의 가치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될 귀한 책이다.

정음출판사 · 99쪽 · 1,200원



해외 선교지·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서 만수 선교사

(1) 9월 30일에서 10월 1일까지 제68차 총회에 참석, 선교사 파송 7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심.

-기도제목-

- ① 원주민 사역에 있어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 ② 선교사역에 협력할 동역자를 위하여

○애굽-이 준교 선교사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월 7일에서 10월 20일까지의 귀국 일정을 마치고 선교지로 다시 귀일하게 된 것을 감사하심.

(2) 귀국 중 카이로 한인교회 주일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분들과 특별히 사무엘 요셉 목사에게 감사를 드림.

-기도제목-

- ① 계속하여 애굽 선교를 위하여 기도 바라시며
- ② 이 선교사님의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벨지움-김 성완 선교사

(1) 예수님 예배 전에 하는 성경공부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특히 부흥하고 있음.

(2) 9월 21일 추석날 온 교회 성도들과 또한 불신자까지도 몇 명이 참석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심.

(3) 10월 23일 주일 학습 및 상찬식을 거행함.

-기도제목-

- ① 벨지움에 있는 교민들이 모두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 ② 성전 구입을 위하여 기도를 바라심

○서독-육 호기 선교사

(1) 8월 27일에서 29일까지 담임 박 상연 목사께서 시무하시는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안 요한 목사와 함께 부흥회를 인도하심.

(2) 8월 30일에서 9월 2일까지 밀라노에서 로마로 가서 로마 한인교회 담임 한 평우 목사를 만나 유럽 선교에 관한 제반적인 담화를 나누심.

-기도제목-

- ① 육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 ② 선교사역에 함께 동참할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칠레-유 재일 선교사

(1) 9월 19일에서 10월 12일까지 한인교회 춘계 대실방을 실시함.

(2) 10월 10일 Fundación Ninoy Patria (경향국 산하 교직원 후원기관)의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심.

(3) 10월 11일 춘계성례식을 베푸심(학습 14명, 음악예배 1명, 입교 1명, 세례 1명)

(4) 칠레 제1어린이집 주일학교는 계속 은혜 중에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오후, 50명의 여자 어린이들에게 탈삼을 증기고 있음.

-기도제목-

- ① 칠레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 ② 한인교회의 건축이 속히 진행되어 그곳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파라과이-김 재창 선교사

(1) 9월 10일 남미 선교협의회 2차 회의에 참석하심.

(2) 9월 20일 원주민 연합부흥회 협조의회차 원주민 연합회 총회장 후안 웨르난도 목사를 내방하심.

(3) 9월 21일 부흥사 랙 움바드 목사 환영 리셉션 및 부흥회에 참석하심.

(4) 별관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나 물자폭등과 수급 부진으로 지연됨.

-기도제목-

- ① 교회 부흥과 10개 원주민 교회 선교 발전을 위해
- ② 경제안정과 별관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 ③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일본-유 병세 선교사

(1) 유 선교사 광미교회에서 재속 은혜 중 설교하시고, 이 권사 부인성경반을 계속 인도 중임(9명 출석)

(2) 입원 환자의 수사전도, 전도지, 기독교신문 등을 배부하심.

-기도제목-

- ① 광미교회의 부인성경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 ② 일본에 있는 금당정이 변하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 부탁하심

○본부소식

(1) 84년 신앙월력을 제작하여 각 선교지마다 선전으로 10월 말경 발송하였음(파라과이 200부, 칠레 200부, 인도네시아 50부, 벨지움 250부, 서독 30

부, 애굽 50부, 터사 충현교회 30부, 라성 충현교회 30부)

그외에 일본, 홍콩, 이스라엘, 영국등 또한 미국의 주 수점 성도에게 2~5부 정도 발송하였음.

(2) 각 선교지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들께 본 충현세계선교회와 선교에 뜻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협력하시어 약간의 선물을 11월 14일에 준비하여 보내드립니다. (선물 내용물은 미역, 김, 라면, 인삼차등)

(3) 본 충현교회의 협동선교사 테리파이 선교사께서 계시는 해외선교회(O. M. F)에서 주관하는 선교지도자 세미나 및 선교현신자 세미나(11월 10일-12일, 성결회관)에 본선교회 교역자 두 분과 윤 태곤 강도사와 두 분이 참석하심.

공동기도제목

- (1) 모든 선교사 내외분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 (2) 모든 선교사의 사역에 있어서 보다 많은 결실이 있도록.
- (3) 선교지 교회들의 부흥과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여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엄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하다
아멘(롬 11:36)

구역권찰회

교회성숙과 교인배가운동의 최전선

- ☐...지속적인 교회성장과 부흥의 새로운 전기를...
-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대폭적인 조직...
- ☐...개편을 실시하고 이를 1984년부터 시행하게...
- ☐...되었다.
-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새로이 개편된 당회...
- ☐...산하 각 기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온 교...
- ☐...회 교인들의 새로운 교회 기구개편에 대한...
- ☐...이해를 돕고 아울러 각 기관 상호간의 이해...
- ☐...를 도움으로 각각의 맡은 직임은 다르나 주...
-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확인하여 그리스도...
- ☐...의 몸으로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 ☐...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구역조직의 중요성과 임무

1955년 16개 구역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의 구역권찰회는 교회의 신경 계통을 담당하여 교우들의 실정을 신속하게 파악하여서 보고 처리할 뿐만 아니라 성도간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여 교회 성장과 부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교회 내에는 교회의 주요 사명인 예배, 전도, 교육 등의 활동을 위한 여러 기관이 있지만 특별히 구역권찰회는 인체의 신경계통과 세포조직과 같은 것으로서 가정을 중심한 평신도 신앙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크던지 작던지 그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구속의 감격적인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전한 한 지체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데는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서로의 돌봄과 봉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곧 구역권찰회 조직인 것이다.

특별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안에서 한 몸으로서 지체의식이 결여되기 쉽기 때문에 구역권찰회를 통한 이같은 지체의식의 강화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역권찰회에 주어진 임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가정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신앙의 형편을 돌아보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의 신앙 성장을 돕고, 경조간에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수고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게 하고 또 그렇게 살게함으로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데 밑바탕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지상교회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같은 사명을 안고 있는 우리 교회 구역권찰회가 새해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2. 1984년 중현교회 구역권찰회 구역분할의 단계와 방법

먼저 새해부터는 종전 5 개지구로 편성되었던 심방위원회가 구역권찰회로 이름을 바꾸고 동시에 10 개지구로 확장 편성된다.

특별히 5 개지구에서 10 개지구로 확장분할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강조점을 두어 구역분할을 한다.

즉, 서울특별시 전역을 행정구역단위로 분할하여 지역별 균형성장을 목표로 하는 전도활동위주(교인배가 운동체제)의 분할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강조점은,

첫째, 종전의 심방위원의 지구분할에서 지역별 균형성장을 위한 전도활동위주의 구역분할,

둘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전도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분할,

셋째, 목회행정과 구역행정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구역분할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구별로 전담교역자를 두고 그 전담교역자의 주도 하에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목회전략과 전도전략을 세우고 구역단위로 전도요원화하여 중현교회가 위치한 인접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역을 목회지로 하여 교인배가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 교회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1984년 구역분할의 단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분할

서울특별시 17개 행정구와 인접시외지역을 10개 지구로 분할(별지 1984년 중현교회 지구분할도 참조)하여 각 지구를 목사 1인과 전도사 1인이 전담하도록 하였고 각 지구의 지역경계는 다음과 같다.

● 구역권찰회장 / 정상우

* 1983년 11월 29일 현재

지구별	담당목사	담당전도사	지 역
1	김창근	임태주	강남구 일부
2	장정일	이진희	강남구 일부와 인접 시외지역
3	조영길	유순화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와 인접 시외지역
4	이양우	최순복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와 인접 시외지역
5	허중욱	정복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와 인접 시외지역
6	김영구	구명신	도봉구, 성북구와 인접 시외지역
7	한영철	장영자	동대문구, 종로구와 인접 시외지역
8	이세열	현정남	강동구와 인접 시외 지역
9	최통호	이두란	성동구
10	김원남	김경성	중구

(2) 지역분할

10개지구를 다시 각각 5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을 장로 1인과 3~6명의 권사가 전담하여 돌보도록 하였다.

(3) 구역분할

각 지역을 또한 동(洞)별로 1983년 11월 12일을 기준으로 중현교회 출석세대수와 14세 이상의 출석교인수를 감안하여 구역을 나누되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랐다.

① 완전세대 5가정 이상에 단독세대를 포함하되 완전세대와 단독세대의 합이 10세대를 가급적 넘지 않도록 구역을 조직한다.

② 14세 이상의 중현교회 출석교인수는 가급적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역을 조직한다.

③ 세대수가 너무 적을 때에는 인접한 몇 개의 동(洞)을 하나로 묶어 한 개의 구역이 되도록 조직한다.

④ 구역의 명칭은 가급적 동사무소의 명칭을 따른다.

⑤ 같은 지구내 지역별 구역수는 가급적 비슷하도록 조정한다.

(주) 지역의 특수성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완전세대가 5세대 미만, 출석교인이 10명 이하라 할지라도 예외적인 구역으로 편성하였다.

(참고) 각 지구 지역별 구역수 통계표

3. 앞으로의 할 일들

(1) 먼저 1983년 12월 중으로 구역권찰회를 10지구로 나눌 것에 따라 구역별 카드를 재 분류하고 담당교역자들이 정식으로 구역목회와 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기획조정실

각 지구 지역별 구역수 통계표

1983년 11월 23일 현재

구분 지구	지 역 별 구 역 분 할 예 장 수						장로, 권사, 구역장, 권찰 배정예정수					비고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계	교역자	장 로	권 사	구역장	권찰	
1지구	11	17	13	17	6	64	2	5	22	64	64	
2지구	12	13	13	5	1	50	2	5	16	50	50	
3지구	13	12	16	12	13	66	2	5	21	66	66	
4지구	11	8	13	12	12	56	2	5	19	56	56	
5지구	10	10	11	11	14	56	2	5	19	56	56	
6지구	15	11	11	14	23	74	2	5	26	74	74	
7지구	18	18	13	19	10	78	2	5	25	78	78	
8지구	13	16	8	10	11	56	2	5	19	56	56	
9지구	16	18	17	15	15	81	2	5	27	81	81	
10지구	21	21	21	19	19	101	2	5	33	101	101	
계	140	144	136	134	124	678	20	50	227	678	678	

(주) 권사수 산출 = 구역수 ÷ 3

구역장, 권찰수 산출 = 구역수

1984년 각기관 임원명단

1. 당 회

당 회 장 : 김 창 인 목사
 당 회 서 기 : 조 현 명
 당회부서기 : 이 태 규
 당회부서기 : 김 광 신
 당회원 : 조현명, 김한홍, 윤종순
 김기정, 윤종성, 임광식
 최석주, 황창용, 이태규
 박창수, 이웅선, 윤용규
 홍중섭, 한경일, 정석태
 최성림, 김영삼, 이원철
 김은호, 윤명식, 조선근
 오태희, 강순용, 김영개
 김방진, 마성락, 김차생
 고병욱, 신현상, 우기진
 김경철, 손동운, 노광현
 이창엽, 김원선, 오진국
 박치민, 정하우, 이병학
 박인세, 서일영, 하대선
 안익태, 윤인현, 최대원
 최상규, 강모용, 박승준
 엄필성, 정광호, 박채용
 송기홍, 강은원, 오정현
 최성현, 이 훈, 김광신
 남선우, 서동석, 김영근
 김영길, 김재균, 김종구
 김창옥, 김천채, 문홍구
 박관영, 박용삼, 박철훈
 송환창, 오정수, 윤광일
 이상현, 이영세, 이창호
 정운석, 조인제, 차신득
 최무길 (이상 79분)

2. 감사위원

위원장 : 윤종순
 위 원 : 김영개, 박관영

3. 인사위원

위원장 : 조 현 명
 (당회서기 당연직)
 위 원 : 최 석 주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이 웅 선
 (재정위원장 당연직)
 임 광 식
 (성가위원장 당연직)
 이 태 규
 (사무국장 당연직)
 정 상 우 목사
 (수석부목 당연직)
 김 수 성 목사
 (교육위원장 당연직)

4. 장 학 회

회 장 : 정 석 태
 위 원 : 김영삼, 박채용, 이영세
 조인제

5. 기획조정실

실 장 : 최 석 주
 부실장 : 정 은 표
 위 원 : 김 차 생
 (섭외, 의전부)
 박 승 준 (자료실)
 김 광 신 (홍보출판부)

6. 예배위원회

위원장 : 김 원 남
 위 원 : 고 병 욱 (총무)
 김 원 선 (예배 1 부장)
 김 은 호 (예배 2 부장)
 이 병 학 (성례부장)

7. 성가위원회

위원장 : 임 광 식 (관현악단장
 단준비위원장겸직)
 위 원 : 홍 중 섭 (수석찬양 대
 장, 제 1 찬양대장겸직)
 최 성 립 (총무, 제 2 찬
 양대장겸직)
 이 훈
 (제 3 찬양대장)
 차 신 득
 (제 4 찬양대장)
 김 천 재
 (선교찬양대장)
 정 경 자 집사
 (여성찬양대장)

8. 전도위원회

위원장 : 장 정 일 목사
 위 원 : 손 동 윤 (총무)
 서 동 석 (서기)
 김 경 철
 (농어촌전도부장)
 이 상 현
 (도시전도부장)
 엄 필 성
 (산업전도부장)

(2) 특별히 연말이나 연초에 새로이 임명된 각 지구담당장로, 권사, 구역장, 권찰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필요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구별 성장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4) 행정적인 면에서도 사무원과 사무실을 보강하

고 기타 필요한 시설의 갱신과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새로운 구역권찰회 개편의 필요성과 구역권찰회의 목표에 대해 온 교인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획조정실 홍보출판부 제공)

윤 인 현(군전도부장)
최 대 원
(전도훈련부장)

9. 북한선교위원회

지 도 : 조 준 상
위원장 : 오 진 국
위 원 : 마 성 락
(총무, 전도훈련부장겸직)
박 인 세
(농어촌전도부장)
송 기 홍(홍보부장)

10. 충현세계선교회

회 장 : 한 경 일
위 원 : 조 선 근(부회장)
윤 명 식(총무, 미주선
교국장겸직)
강 순 용
(아주선교국장)
남 선 우
(유럽선교국장)
김 영 근(중동아프리
카 선교국장)
김 종 구
(공산권선교국장)
박 용 삼
(선교훈련국장)
신 현 상
(재정지원국장)

11. 교육위원회

위원장 : 김 수 성 목사
위 원 : 오 태 회(서기, 평신도
교육훈련 1부겸직)
우 기 전
(회계, 장년부장겸직)
장 광 호(주교 1부장)
최 성 현(주교 2부장)
강 은 원(주교 3부장,
대학부장겸직)
강 모 용(주교 4부장,
소망부장겸직)
오 정 수
(특수교육부장)
최 무 길(새신자부장)
박 치 민
(평신도훈련 2부장)
안 익 태(도서실장)

12. 건축위원회

위원장 : 김 기 정
위 원 : 이창업, 윤종성, 오진국
노광현, 하대선, 김재균

13. 재정위원회

위원장 : 이 응 선
위 원 : 오정현(서기)
송환창(서기)

14. 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 윤 종 성
위 원 : 김영길, 문홍구, 정운석

15. 재단법인충현동산

위원장 : 이 창 업
위 원 : 김방진, 박창수, 김창욱
감 사 : 윤종순, 김영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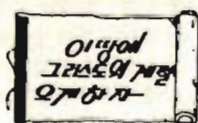
16. 기도원관리위원회

위원장 : 최 상 규
위 원 : 김한흠, 서일영, 이창호

17. 사 무 국

국 장 : 이 태 규

(주) 각 위원회 지도는 1983년 11
월 29일 현재 확정된 기관만 표시
되었음. 미표시 기관은 추후 확정되
는 대로 보충 게재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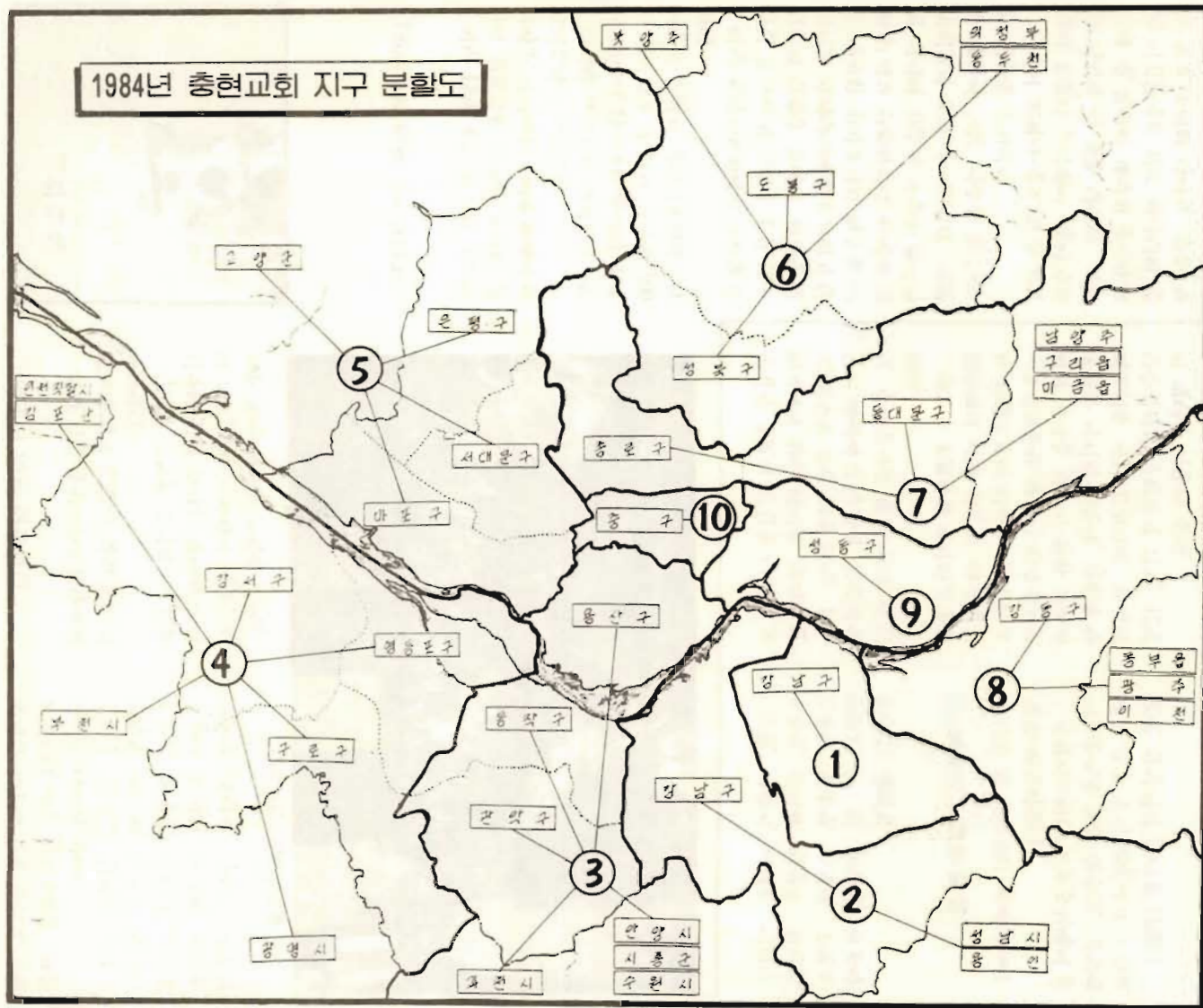


1984년 주교각부 지도 및 부장

교 육 위 원 장 : 김 수 성 목사
주 교 담 당 교 역 자 : 정 관 호 강도사
성경연구원담당교역자 : 김 장 근 강도사

부 별	지 도	부지도	부 장	부감(남)	부감(여)
영아부	정소영		김상규	박덕양	배옥인
유치부	정연희	김정자	윤성철	박찬섭	지경애
유년부	김익경	이성은	이성원	김영수	김정자
초등부	김동열	유희섭	노문환	신종명	명정옥
소년부	이양우	이진희	황영일	오영희	임옥순
중등부	이원길	김성윤		임기재	이희수
고등부	안석렬	남창우		김환기	문옥순
대학부	허충옥	김경성	강은원	안의경	안춘진
청년부	김수성	하영자	손경수	한송규	손명순
중년부	김창근	현정남	윤광일	이하영	공향조
장년부	김희보	윤용규	우기전	박영식	이신일
소망부	조영길	김정순	강모용	김영생	김정옥
직정부	박동실	김양래	유순화	한현일	이영일
가정부	윤영탁	오태용	최기용	한형식	안인현
장새부	구명신	정금숙	이인상	김정태	이명자
세례부	이성근	김성주	최무길	이 욱	윤재춘

1984년 총현교회 지구 분할도



교회 소식



□교역자와 장로 금식철야기도

지난 11월 4일 본교회 전교역자와 장로들은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고, 저녁에는 유년부실에서 철야기도회로 모였었다.

이처럼 교역자와 당회원들 뿐만 아니라, 11일에는 온교인 전체가 금식하고, 밤 11시 본당에 700여명이 모여서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철야기도회에서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빌립보서 1장 18~2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앞에서도 자기양심에도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자' 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최환 집사의 간증과, 정상우 목사가 빌립보서 4장 1~20절의 말씀을 통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이같이 교역자·장로 및 온교인들이 특별히 금식하며 철야기도를 가지게 된 것은 당면한 교회문제 중, 특별히 새성전 공사와 교회 이전문제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열린 것이었다.

□ 안수집사 후보 20명 선출

지난 11월 13일 I~V부 대예배시 있었던 공동의회에서는 「안

□ 새로이 20분 장로장립

지난 11월 3일 저녁, 본당에서 제24대 장로 20분의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순서는, 차낙현 목사의 기도, 김양수 목사의 설교, 김현중 목사, 정익수 목사의 권면,

정혜신 교수의 축송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날 장로장립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영근, 김영길, 김재균, 김종구, 김창옥, 김천재, 문홍구, 박관영, 박용삼, 박철훈, 송환창, 오정수, 윤광일, 이상현, 이영세, 이창호, 정운석, 조인제, 차신득, 최무길

아래사진 : 장립장로들



수집사 후보자 인선을 당회와 교역자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일주일 후인 11월 20일 I~V부 대예배시, 당회에 위임하였던 「안수집사를 뽑는 선거」가 있었다.

당회가 후보자를 제시하고 공동의회에서 이날 선출된 안수집사는 42명으로써 이들은 앞으로 3~5개월동안 당회가 안수집사로써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교육후 당회고시를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안수집사로 장립하게 되며, 42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수집사 후보명단

강봉수, 김남조, 김과경, 김동삼, 김상규, 김상덕, 김성동, 김용석, 김재명, 김정태, 김종연, 김종주, 김형선, 김환기, 나희주, 노문환, 문쾌인, 박종남, 실관호, 소정부, 양종섭, 원운철, 이갑재, 이성원

이승철, 이재기, 이태승, 이형수, 이호경, 임기채, 임정우, 전남일, 전재룡, 전홍열, 조성행, 주영호, 주원홍, 최 환, 한현일, 한홍식, 홍주영, 황영일

□ 예배시간 일부 변경

11월 첫 주일부터 예배시간이 일부 변경되었다.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에서 5시30분으로 30분 늦추고, 삼일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서 7시로 30분 앞당겨서 드리게 되었다.

□ 교육위원회

① 학생·학부모·교사 연합기도회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학생 본인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약 200여명이 11월 13일 오후 3시, 영아부실에서 모였다.

이날 정상우 목사(수석 부목사)가 사무엘상 17장 26~40절 '승리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② 교사단기훈련

16부 주교 교사를 위한 교사단기훈련이, 11월 15~17일, 3일간 매일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임종만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자'라는 주제로 있었다.

이번 훈련기간 중, 임종만 목

사는

첫째 날, 「예정구원의 불변성」

(렘 1 : 3~6)

둘째 날, 「중생의 은혜」

(요 3 : 1~8)

셋째 날, 「영화로운 구원」

(롬 8 : 30)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교사수는 총인원 598명(10. 1 현재) 가운데 약 60~70%에 해당하는 교사가 참여하였으나, 매우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였다.

아래사진 : 교사단기훈련



□ 전도위원회

① 부현교회 헌당예배

전도위원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현교회가 지난 11월 19일 장정일 목사(전도위원장)의 사회로 헌당예배를 드렸다.

강원도 인재군 남면 부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부현교회 (현담임 교역자 최상석 강도사)는 1979년 7월 이옥녀 권사(충현교회)가대지를 구입한지 4년 4개월만에 눈물어린 가운데 완공하여 하나님께 헌당하게 되었다.

올해 9월에 충현교회 만나여

전도회의 재정지원으로 400평 대지에 24평의 교회당 건립을 위한 기공예배를 드린 부현교회는 총공사비가 1천만원 정도 들었다. 공사과정에 있어서, 인근부대의 군인 성도들의 전적인 땀흘림의 헌신이 있었기에 두달 반만에 완공을 하였다.

그리고 내년엔 사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옥녀 권사와 여전도회에서 180만원을 헌금하였으며, 이날 헌당예배 순서에서 인재장로교회의 염삼손 목사는 말씀선포에서 '아직도 입당조차 못한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위해복음의 기치를 세우고, 어렵지만 산

□ 남전도회 개편 및 창립총회

기존의 제일·제이 남전도회 외에 제3 남전도회를 새로 창립하면서 연령에 따른 회원자격을 일부 변동이 있었으며, 각 회에서 총회를 열어 임원들을 새로 선출하였다.

① 제1 남전도회

제1 남전도회는 회원자격을 51세 이상의 남자 성도들로 구성되며, 11월 13일 총회로 모였다.

이날에 선출된 신임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 장	정석태	장로
부회장	최대원	장로
총 무	우기진	장로
서 기	고병욱	장로
부서기	김여순	집사
회 계	신현상	장로
부회계	주원홍	집사

② 제2 남전도회

회원자격을 41~50세인 충현교회의 남자성도들로서 구성되며, 11월 20일 총회로 모였다.

이날에 선출된 신임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 장	박치민	장로
부회장	최성림	장로
총 무	김은호	장로
서 기	이상현	장로
회 계	남선우	장로

③ 제3 남전도회 창립총회

회원자격을 40세 이하로써 12월 11일 창립총회로 모임 예정이다.

간벽지에 먼지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기도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란만 한 귀한 일로써, 참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다'고 하였으며, 신남교회 김관중 목사는 축사에서 '38선에 인접한 부평리의 복음화가

곧 북한선교와 민족복음화의 가까운 지름길이며, 이 귀한 사명에 충현교회가 앞장선 것과 부현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기를 축원' 하였다. 이날 순서 가운데, 특히 교회당을 짓기까지 많은 봉사를 아끼지 않은 군인 성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다.

이날 헌당예배에 모인 성도의 수는 장정일 목사, 김경칠 장로의 여전도회 회원등 충현교회 90명과 부현교회 교우와 인근의 교회 교우들 등, 약 200여명이 함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헌당예배를

요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전종업원 복음화에 힘쓰고 있는 직장이다. 알미늄 샷시를 만드는 이 회사는 금년도 예년과 같이 전종업원이 모여 하나님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구원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으며, 새성전 건축을 위해 100여명의 전종업원이 예물을 드렸다.

⑥ 전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 및 기관의 교역자 훈련이 지난 11월 29~30일 충현 기도원에서 있었다.

(아래 : 한국금속공사 추수감사예배)



함께드렸다.

② 인천연안선교

연안선교회에서는 11월 8일 인천연안에 전도를 하였다.

③ 청송감호보호소 위문

여전도회(에스더 3 지회)에서는 11월 15일 청송감호보호소에 위문하였다.

④ 에스더 여전도회에서는 11월 24일 중부경찰서 보호소에 위문하였다.

⑤ 직장에서 추수감사예배

전도위원회 특수분과에서는 11월 17일 부천에 있는 한국금속공사(사장 조흥진 집사)는 매주 목



⑦ 헌 지원사업

그간 전도위원회가 여러 방면으로 전도하여 오던 중, 작년에는 장락교회 등을 자립시켰고 올해 7월 11일에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재현교회(대지 130평에 교회당 27평 사택 12평)의 헌당예배를 드렸으며, 11월 19일에는 부현교회의 헌당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부정기적인 활동 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회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지교회(6곳)

금현교회(교역자: 장병기), 부현교회(〃 최상석), 서현교회(〃 오창남), 재현교회(〃 허상운), 신현교회(〃 유익순), 청운교회(〃 박창득)

나. 위탁교회(15곳)

영광맹인교회(교역자: 김성한), 수화교회(〃 박수일), 천곡교회(〃 김옥자), 송계리교회(〃 최태남), 웅정교회(〃 신현국), 미산교회(〃 정광현), 금곡제일교회(〃 이원준), 내지교회(〃 한유희), 을지교회(〃 이기일), 셋별교회(〃 이양화), 맹인교회(〃 박창운), 고양교회(〃 오시열), 유천교회(〃 윤태권), 거야도교회(〃 조정란), 대전리교회(〃 문종복)

다. 군인교회(9곳)

라. 병원 및 기타(13곳) 병
강남시립병원(담당자: 신옥희), 육군통합병원(〃 황정숙), 국립의료원(〃 홍명신), 박애원(〃 박성은), 장미회(〃 박중철), 어린이전도회(〃 조관규), 인천소년교도소, 인천·춘천교도소(〃 박양덕), 다메섹선교회(〃 최국일), 연안선교회(〃 김태식), 중부경찰서(경북실), 서울시경(경북실)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 당회장 목사님

① 부산에 있는 신부산교회에서 11월 7~11일까지 집회를 인도하셨다.

② 지난 11월 28일~12월 1일까지 신림동교회에서(새성전 입당축하) 부흥집회를 인도하셨다.

□ 1984년도 제직임명

지난 11월 27일에 '84년도에 봉사를 제직들을 새로 임명하였는데, 그 수는 다음과 같다. 권사 31명(총359명이 됨), 남자 서리집사 98명(총438), 여자 서리집사 169명(총863). 그래서 84년 제직회는 장로 80명과 안수집사 29명을 포함한 1800명으로 구성된다.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 24, 25)

별 세

- 인정환씨(이종환씨 모친) 10월 15일
- 김흥민씨(김정복, 최연옥집사 부친) 10월 20일
- 이우명씨(구의 5 구역 강경옥권사 부친) 10월 27일
- 원옥집사(고 박두성집사 부친) 11월 1일
- 홍순이권사(장희자집사 모친) 11월 10일
- 양순화권사(방배구역) 11월 11일

11월의 교우동정

● 1 지구

광 장 구역 김광일	잠실1-1구역 갈병준
단 대 구역 김현숙	면 목 구역 정철라
전호 2 구역 우강래	종익 1 구역 이정환
성수 2-2 구역 장태욱	전호 2 구역 윤재운
행당 1 구역 한순덕	우일 A 구역 최영철
금호 3-1 구역 김현숙	진흥 A 구역 박경희
성남 구역 장정남	단 대 구역 임성택
단 대 구역 김정기	

● 5 지구

대방 1 구역 이민숙	보광 1 구역 조태예
과 전 구역 위성희	광명 2 구역 김미영
삼호7구역 최희숙	서조 1 구역 이일숙
봉천 1 구역 홍갑순	남 장 구역 강승연
사당 3 구역 김금순	비 산 구역 이상철
구로 2 구역 이윤옥	팔동2-1 구역 이창자

● 2 지구

쌍림 1 구역 최영순	하월곡 2 구역 유옥경
동소문 4 구역 임현옥	삼선 4, 5 구역 김홍순
상월곡 구역 이해숙	중림 1, 2 구역 김기홍
신당 6-1 구역 이은철	

● 3 지구

신 사 구역 김금례	잠신 2-3 구역 김병희
남가좌 1 구역 이공덕	예 관 구역 정두수
낙 원 구역 진정은	북가좌 구역 이상배
종로 5 구역 김정구	녹 번 구역 조병운
율리 5-2 구역 주명숙	종로 4-5 구역 홍석천
장충 9 구역 이요남	예 관 구역 김금자

● 4 지구

영동 1 구역 윤병순	역삼 1 구역 윤기호
인현 1-2 구역 김종환	신사 1 구역 윤순규
종로 5-2 구역 유태복	양 재 구역 장영숙
아 현 구역 황태연	세 곡 구역 권정환
논현 5 구역 이병아	개포 1 구역 한정희
신사 2 구역 민병승	

결 혼

- 정병만군(해와동구역)과 김덕부양(초등교사 청량리구역) 10월 26일
- 백남수군과 천명희양(홍익구역 천태봉씨 딸) 10월 27일
- 노상원군과 박연숙양(성가대원) 10월 29일
- 정문호군과 신은자양(송귀남권사 딸 천호구역) 11월 1일
- 이만재군(이병택씨 장사영권사 아들)과 최석란양 11월 4일
- 이창남군(이덕순권사 아들)과 장명숙양 11월 12일
- 목진우군과 박인자양(신순덕집사 딸) 11월 12일
- 정민수군(장삼학씨 이현자씨 아들)과 최남숙양 11월 14일
- 김현철군(김영 삼장로 손명순권사 2 남) 11월 17일
- 김관영군(함송현권사 아들)과 김미선양 11월 17일
- 김광남군(나선예권장 아들) 11월 19일

심경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해 온 것은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가정이다.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며, 서로 도와서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려 하는 것이다. 신앙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소속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쓰라.

- P. B. 스미드 -



새로 나온 교우는

*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 「학습」을 받으신 사람은 세례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집회시간은 12시이며 장소는 새신자부실에서, 세례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12월의 행사

◇ 교회

2일 / 정기당회
4일 / 권찰임명
9일 / 전체철야기도회
11일 / 교사임명
18일 / 성가대임명

◇ 전도위원회

1일 / 의료전도단 창립
8일 / 실업인전도회 창립
9일 / 여전도회 월례회
여전도회지회 총회
11일 / 제3남전도회 총회
18일 / 전도위원회 월례회
27일 / 전도위원회 총회

◇ 재정위원회

4일 / 재정위원회 월례회

◇ 건축위원회

25일 / 건축위원회 월례회

◇ 교육위원회

25일 / 교육위원회 월례회
25일 / 각부 수료식 및 진급식
27일 / 교사 총회

◇ 자산관리위원회

18일 / 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 심방위원회

4일 / 정기제직회
11일 / 권사회 임원회
18일 / 권사회 월례회
25일 / 구역권찰회의
26일 / 제직총회

◇ 출판국

4일 / 월간 충현 12월호 발행
18일 / 출판국 월례회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 / 윤명식

편집위원 /

이성근	이세열
윤영탁	안석렬
김영구	조현명
김차생	우기전
이훈	정은표
오태용	이형수

1983년 12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 12월호

제11권 제11호
통권116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3년 12월 1일 인쇄
1983년 12월 3일 발행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윤명식
주간 / 김영구
편집부장 / 문영화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 02-274-217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36
전화 / 274-2171·2172

편집후기

월간충현은 「개혁신앙의 전파」·「말씀의 생활화」·「성도의 교제」라는 목적을 가지고 경건한 보수신앙을 파수하기 위하여 문서선교 활동을 계속하여 온지도 내년으로 12년이 된다.

그간의 월간충현을 살펴보면 3대목적에 맞는 균형있는 내용의 편집이 못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안정된 필진의 확보라든가 풍성한 투고 등의 부족이 그 이유일 수도 있겠으나, 좀 더 맘흔리는 수고의 부족도 있었음을 자성해 본다.

84년에는 보다 성장한 충현교회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더욱 밀착시키는 일」에 월간지로서의 사명에 힘쓰며, 교회의 소식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교회소식이란 시사성을 띤 것이므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것이 요구되며, 교회의 홍보라는 기능면에서는 월간지는 다소 부족하며, 오히려 주간지 또는 격주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참 믿음을 굳게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려는 모든 독자 교우들께, 월간지로서의 특성과 사명을 다시금 상기하며 더욱 좋은 월간충현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위) ① 광도영림예배당경 (11. 3)

② 말씀 전하는 김양수 목사

③ 장로장립 인수식

◎ 사진설명

(아래) ① 부원교회 헌당예배를 마치고 (11. 19)

② 부원교회 교역자 내외분과 장정일 목사

③ 여전도회원들의 특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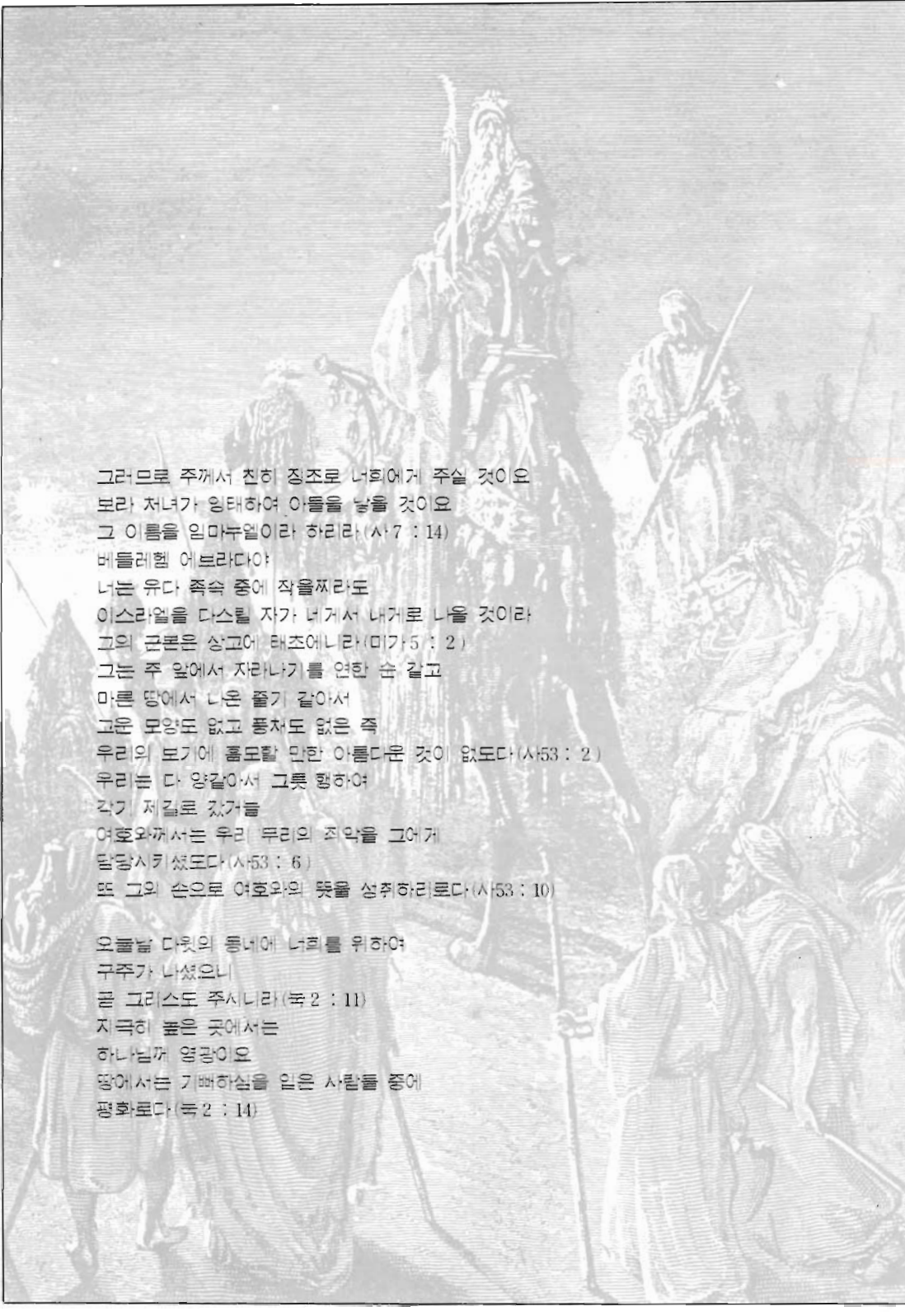
④ 추수감사절 (11. 20) 제 2 부순서에서

유치부 아동들의 축하무대

⑤ 구약봉화를 쬔다는 아기

⑥ 감사헌극을 기도하는 아가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 : 14)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가 5 :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 53 : 2)
우리는 다 양같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 : 6)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사 53 : 10)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 : 11)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 : 14)